

아이디어 ‘나눔’ 성장은 ‘함께’

내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일원서 ‘스타트업 패키지 타운’ 로컬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성장동력 회복에 목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일원에서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타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의 창업붐을 확산하고 혁신성을 갖춘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

등 8개 기관과 창업중심대학 등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혁신 스타트업 20개사가 열띤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창업·벤처 붐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들이 예비창업부터 초기창업, 도약성장에 이르기까지 창업성장단계별 협업이 가능하도록 ‘로컬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해 코로나19로 정체된 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패키지 타운 선포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밋업 & 네트워킹 △스타트업 페이스리프트 멘토링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가 진행된다.

이와함께 도내기업 중 최초로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김태영 대표(테라릭스(주))의 지역기반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전략에 대한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는 ‘스타트업 밋업’을 통해 기업인이 생각하는 미래지역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성장전략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에서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창업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창업기업제품의 공공시장으로 진출 지원에 위해 도내 우수창업기업 제품 전시 및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상

담회’를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된 ‘디지털 대전환’ 트렌드를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ZEP 플랫폼’을 구축해 본 행사에 참여가 어려운 타지역의 부가기관과 도민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은 “이번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타운’을 통해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로컬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진 만큼 정부의 창업지원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마늘·양파 건조 ‘한 번에’

농진청, 오늘 충남 서산시 건조장치 현장 연서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많은 양의 마늘과 양파를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장치 현장 연서회를 6일 충남 서산에서 연다.

마늘과 양파는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다. 5~6월 수확해 저장하기 전 반드시 잘 말려야 하므로 비닐이 쌓여있는 반죽열린 곳을 통해 건조한 비닐이 들어간다.

기존에는 마늘, 양파를 겹겹이 쌓거나 건조 중간에 뒤집어야 하는 문제로 고르게 건조하지 못했지만, 이 장치를 이용하면 마늘 10톤(약 0.66헥타르 생산량), 양파 10톤(약 0.17헥타르 생산량)을 바다면적 26㎡에서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건조 방법보다 품질이 좋아 마늘의 경우 지난 해 기준 kg당 700원 더 높게 수매가가 책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충남 서산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마늘·양파 재배 농가를 초청해 현장 연서회를 열고, 내년부터는 영농현장에 장치를 시범 보급해 마늘, 양파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확 후 저장 전 건조가 필요한 다른 작물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에 중점을 두고 영농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쌓은 다음 비닐과 차광막으로 덮고 위를 갈파 밀폐한 뒤 송풍기 반대쪽은 열어두어 공기가 통하게 한다. 송풍기가 작동하면서 뒤쪽에 쌓아놓은 마늘이나 양파에서 공기를 빨아내면 압력 차가 발생해 열과 위를 덮은 비닐이 쌓여있는 마늘이나 양파에 밀착되고 송풍기 반대쪽 열어둔 곳을 통해 건조한 비닐이 들어간다.

비닐은 바다에 깔거나 창고에 쌓아놓고 바람을 쐬 말리는 방법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논이나 밭에 펼쳐 놓고 말리면 소나무, 장마 등 날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많은 양의 마늘과 양파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건조할 수 있는 ‘차압식 마늘·양파 예건 장치’를 고민해 제작했고, 농촌진흥청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해 장치의 성능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은 차압식 마늘·양파 예건 장치를 영농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재배 농가에서 현장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차압식 마늘·양파 예건 장치는 송풍기, 펌프, 비닐, 차광막으로 구성돼 구조가 간단하다. 또한 재배지나 온실 안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와 해체, 보관이 매우 간편하다. 우선 송풍기 뒤쪽 땀바닥에 비닐과 펌프를 깔고 마늘이나 양파를

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받아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자본 건전화 규제인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작년 6월 신청 이후 1년 만에 이뤄졌으며,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JB금융지주 측은 전했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리스크 관리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뉴시스



전북농협은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도내 고추 주산지 농협 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고추전라북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추 계약재배 확대·농산물 제값받기 앞장’

전북농협, 고추 전라북도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도내 고추 주산지 농협 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고추전라북도협의회(회장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판매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행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추 채소가격안정제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유통개선과 회원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추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수급 불안정 시 수매비축 출하 조절 등 단계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남규 회장은 “전북 고추 주산지 협의회 회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고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소득 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및 세척 건조 등 재배 농가의 생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해외여행 특화 에어머니 체크카드 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최근 급증한 여행 수요에 맞춰 해외여행 특화 상품 ‘Air Money 체크카드’를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Air Money 체크카드’는 결제 시 적립되는 항공 포인트 Air Money로 제휴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각종 여행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카드는 국내 및 해외의 전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0.5%의 Air Money가 적립되고, 전월 실적 충족 요건과 적립 한도가 없는 파격 혜택을 자랑한다. 단, 세제공과금, 대하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이용 수수료인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가 면제돼, 해외여행 중 사용하기 유리한 상품이다.

신협 ‘Air Money 체크카드’의 제휴처는 신협 △여행 특화 △여행리뷰 △진에어 △티스캐너 △와이퍼이 도시락 △홍익여행사 △빈필리조트(VINEARL) △노보텔 엠베서더. 이중 숙박업종 외 전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휴 특가예약, 호텔 내 식음료 10%~15% 할인, 호텔 패키지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윤상 기자

농촌 신활력플러스 미래지향적 방향성 정립

전북 협의회, 세미나 열고 사업 의미·가능성 중심 진행

전북 농촌 신활력플러스 협의회는 ‘성과확산 및 미래지향적 방향성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각 추진단의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12개 시·군 추진단의 추진상황과 성과공유를 통해 지역별 역량과 특색에 맞는 조직 성장의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했다.

전북 협의회가 주관한 릴레이 세미나는 총 4회 차로 △추진주체 육성 △창의적 사업 발굴 및 지원 △혁신적 조직 구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북 협의회는 지난 세미나에서 “액션플랜 육성은 지역 내 행정과 추진단, 각기 다른 단체들이 협력하여 끊임없는 소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역동적인 주제로 성장해야 하고 추진단은 그 지역의 전문성이 확보된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어서 진행된 4차 세미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의미, 가능성,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활력플러스 사

업은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의 미중물 사업으로서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추진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비와 전문성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역 전북도청 농촌활력과 과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혁신적인 허브사업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협의회는 2020년부터 정보교류를 위한 자율적 모임을 가져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이해와 운영방식에 대해 공유했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역량강화를 실시, 올해에 전북 12개 시·군이 참여한 전북 농촌 신활력플러스 협의회를 설립하는 규약을 맺었다.

이후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내 네트워크 신활력플러스 방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추진단의 긴밀한 협업과 정보공유로 전북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aT, 문승현 주 태국대사와 ‘그린푸드 데이’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충진 사장은 지난 4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 문승현 대사를 만나 전 세계에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생활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이 태국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난해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ison(百盛),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MART와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전 세계 64개국에 138개 지회, 총 2만8,7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World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대한민국 무역 진흥과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미국 최대 아시아인푸드 전문 유통회사인 리브라더스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를 범세계운동으로 추진 중이다. /김윤상 기자

군산조선소 재가동 인력양성 본격

도, 사내협력사 채용연계형 2개 과정 교육 추진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 방식은 7월 홍보를 시작해 8월부터 채용과 교육을 병행한 채용연계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 모집과 연계된 인력 양성은 총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경력자 및 응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군산조선소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인력은 현대중공업 그룹 협력사 기술인재 채용관(http://exsmshhgroupkr) 사이트에

지원하면 된다.

이어 조선업 경력이 없거나 응접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인력은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 후 사내협력사 채용+현장교육으로 연계되며, 기본교육 중에는 최대 50만 원의 훈련수당(개인별 상이)이 지급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은 전북인력개발원, 전북응용학원 등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전원 채용하기로 약정했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채용 직원에게는 현대중공업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사내협력사에서 3년 이상 재직 시에는 현대중공업 직원으로의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김경수 기자

내전북본부, 재난·건설·주거안전 역량 강화 워크숍

1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지난 4일 안전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H 임직원 및 건설현장 참여자 주택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교류와 현장소통을 통해 안전최우선 경영방침 전파에 초점을 두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난·건설·주거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재해근절

을 위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예방 교육 △건설현장 주택 안전관리 교육 △스마트 안전혁신기술 소개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근로자 소통간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무재해 달성 건설현장 소규모공사, 주택관리소에 대해 우수안전관리자 표창을 수여하며 연이은 점검으로 지친 근로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다졌다. /김윤상 기자